



이메일, 웹에서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2023년 6월호(통권 36호)****노부모 돌봄을 위한 가족 지원**

고선주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측하는 일은 생애 발달 초기단계가 더 용이하다.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면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 아이는 혼자서 앉을 수 있고, 걸음마를 뒀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노후의 보편적 삶을 예측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흔히 백세시대라고 누구나 말하지만 백세시대라고 해서 백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만큼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과거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3.5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66.3세로 17.2년이 유병기간으로 나타났다(2021 사회지표). 또한 여성의 경우는 대략 유병기간이 20년 정도로 남성보다도 훨씬 긴 편이었다.

고령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가족'이라는 응답은 지난 10년 사이 약 10% 감소(2022고령자통계)하였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이 노부모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부모의 유병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고, 남성 부모 중심이던 부양의 의무가 남녀 모두의 노부모 4인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남 부부의 부담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돌봄 부담은 더 길어지고 고민의 영역이 다각화된 것이다.

더욱이 자녀양육과 달리 자녀를 책임지던 부모를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65세는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의 성인자녀들은 65세 부모를 노부모라 여기지 않는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부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노인임을 자각할 때부터 자녀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저마다 다른 상황과 시기에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노부모 돌봄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돌봄의 수준조차 매우 다양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망에 이르는 긴 시간을 각 개별적인 자녀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것이다.

가족의 위기는 돌봄의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착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노부모 돌봄의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부와 사회의 책임 영역은 매년 급격한 예산과 다양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의 노부모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닐까? 성인이었지만 독립성을 잃어가는 노부모와의 관계는 함께 동거하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자녀가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 본인의 가치에 따라 무자녀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무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있는 한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제도적인 공적 지원을 넘어서 가족의 어려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을 시작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가건모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노부모를 돌보는 중장년 자녀를 위한 교육'은 향후 가족정책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노부모 돌봄 지원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미 이사장은 5월 11일(목)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우석대학교 학생취업처장이기도 한 이승미 이사장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모태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2006~2007)과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2008~2010)을 역임하며 지역 가족센터 활성화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등 가족정책의 발전에 지난 28년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하였다.



2023년 좋은부모 시상식 및 제 40차 가족정책 포럼이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조은희, 듀오, 연합뉴스, (사)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의 후원으로 5월 1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군포시가족센터에서 육아공동체품앗이의 리더로 활동 중인 황선화 님이 공동체 양육의 가치를 확산한 기여로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신설된 듀오 좋은부모상은 박동욱, 전해경님이 수상하였다. 이외 신나는, 수용하는, 책임있는, 노력하는, 이웃나눔, 함께하는, 안전지킴이부모상 등 총 13가족이 올해의 좋은부모상을 수상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제40차 가족정책포럼이 '나이드는 한국, 노부모 돌봄 중장년 가족지원'을 주제로 다루어졌다. 서울대 김경민 아동가족학과 교수의 '변화하는 가족과 노부모 돌봄'과 더서로이음 장미나 대표의 '노부모를 돌보는 중장년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 교육'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서지원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광진 센터장(강동구가족센터), 이형정 책임(서울시50플러스재단도심권사업팀)의 토론이 있었다. 가족의 노부모 부양 부담에 관한 현실을 짚고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매개하는 중장년 가족이 지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의 다섯번째 지부인 경북 문경지부 개소식이 2023년 4월 12일(수) 문경지부 교육장(문경시 영순면 포내5길 16)에서 열렸다. 정은아 지부장은 계명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부터 대구동부 지부에서 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 지부장은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6월 23일(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가족센터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PDCA를 중심으로' 내용으로 2023년 상반기 위탁기관 직원교육이 진행되었다. 중앙대학교 박정운 교수와 여주대학교 정지영 교수의 경험에 기반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하반기 가족센터 평가에 앞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향후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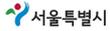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6월 30일(금) 성동구청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으로 해외쇼핑몰(아마존) 창업 입문 과정의 수료식 및 교육생 간담회를 가졌다. 6월 12

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총 33시간 과정으로 교육 정원인 15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력단절 이후의 새로운 진로 설정 및 재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고자 비교적 진출이 용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입점 실무 과정을 통해 실제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까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센터에서는 수료 후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에 도움이 되는 포토샵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창업에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족센터 ✉️



엄마아빠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관리사가 찾아갑니다

6월 27일



- 지원대상 : 임신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중위소득150%)
- 모집기간 : 2023. 6. 27. ~ 7. 6. (서비스지원은 7월부터)
- 지원신청 : 패밀리서울 familyseoul.or.kr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관적인 서비스 신청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였으며,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6월 27일(화) 대시민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사이트 (<http://seoulgasa.or.kr>)를 통해 가사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장동구가정상담센터

강동구가정상담센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과 일상성으로의 회복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 인생의 신호등' (2023.5.12.~6.27), '대화를 부탁해'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가족생활' (2023.4.7.~6.2.)을 마쳤고, 9차, 10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강동구가족센터 

강동구가족센터는 지난 5월 13일(토)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돌아온! 가족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다 하나의 가족 축제>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병행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오다가, 4년 만에 주민과 직접 만나는 운동회로 돌아왔다. 300여명의 강동가족이 참여하여 운동회, 세계여행부스, 문화공연, 물총축제, 부부의 날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관악구가족센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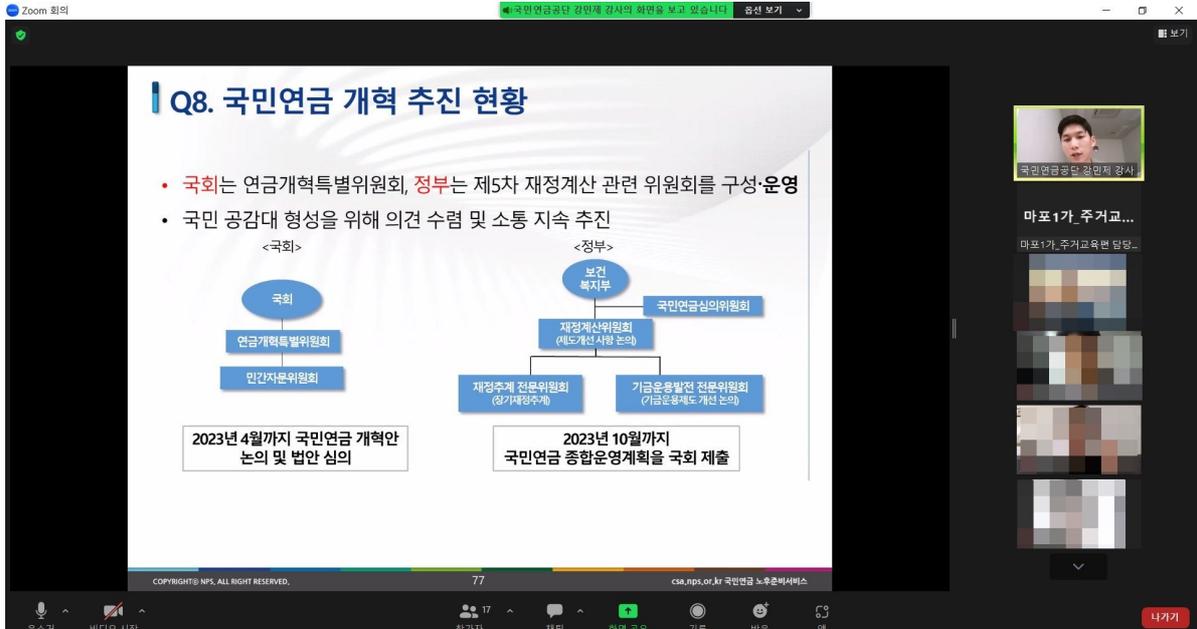
난임·입양가족을 대상으로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관악구가족센터에서는 난임부부(21), 입양전부모(22)에 이어 금년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부정적 심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입양후부모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호교류 방식을 학습하여 실질적인 양육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이마고 부부치료로 양육불안의 원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단상담 종결 후 자발적으로 자조모임이 형성되었고 입양아동들도 해당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의 의지로 결성된 자조모임은 입양가족의 심리적 양육불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포구가족센터 

마포구가족센터에서는 20~30대 1인가구 대상으로 '행복한 1인라이프-금융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 국민연금 활용법, 수입/지출관리 등 자산관리 방법을 국민연금공단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재무관리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1:1재무컨설팅도 진행되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가평군가족센터 

가평군가족센터에서는 6월 26일(월), 28일(수) 총 4회에 걸쳐 2023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을 위한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관내 4개의 초등학교 (상천초, 상색초, 가평초, 청평초)에서 1~3학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6월 29일 (목) 한석봉도서관에서 어린이집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추가로 진행하여 관내 미취학·저학년 아동이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및 성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 📧 김포시가족센터 📧

김포시가족센터는 김포시와 함께 지난 5월 23일(화)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2023년 가정의 달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시민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가족센터 음악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수여식 및 건강가정선언문 낭독, 성악가 고희전, 강기안씨가 함께한 힐링콘서트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포시 김병수 시장의 축사를 비롯 가건모 이사장, 김포시 의회 김인수 의장의 영상축사와 축하 메시지가 더해졌다.

김포시가족센터의 김연화 센터장이 5월 11일(목) 서울시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가정의달 기념식'에서 가족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 군포시가족센터 📧

군포시가족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 및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5월 20일(토) 산본로데오거리 이마트 옆 광장에서 군포어울림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군포시를 만들자는 취지에 맞게 세계의상 퍼레이드, 다양한 나라 음식체험, 세계 전통의상 포토존, 세계 전통놀이마당, 세계 전통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가족사랑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가족사진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각 나라 대표 가족들과 내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좋은 부모 선서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더욱 뜻깊게 하였다.



✉️ 천안지부 ✉️

천안지부에서는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고!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충남의 중장년 여성들이 책놀이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 도전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고 이후 재능나눔 봉사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hfamily0312@gmail.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T) 02-6354-0515, F) 02-6354-0516  
홈페이지 : healthyfamily.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839201-04-020098 예금주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수신거부 [Unsubscribe](#)